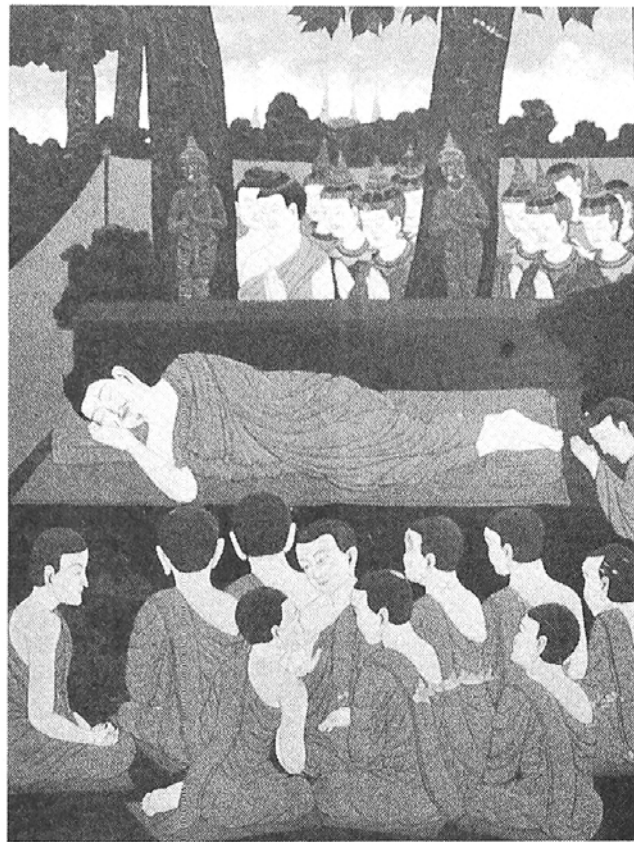


# 부처님 열반 무상 보여준 교훈

### “뒤늦게 도착한 가섭이 슬피울 때 부처님은 관 밖으로 두발을 보이셨다”

석존의 죽음은 “열반에 들었다”고 표현된다. 열반은 깨달음의 경지를 일컫는 말로서 죽음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지만, 부처님의 죽음을 한하여 이 말이 사용되고 있는 예가 많다. 훗날 경전에서는

리탑으로 가서 참배하였다. 이때 건립된 불사리탑 8개 중에서 오늘날 분명히 확인된 것은 2개 뿐이다. 지금까지 부처님 전기를 내려오는 붓다의 생애를 살펴보면, 파울 도이센



▷ 성도 후 45년간 전범을 한 부처님이 80세의 나이로 열반에 들었다. 부처님의 열반은 단순한 죽음이 아닌 무상의 도리를 일깨운 교훈이기도 했다. 사진은 부처님 입멸을 슬퍼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묘사한 조계사 벽화.

##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 전기속의 佛陀 (5)

진리와 일체가 되어 시공을 초월한 존재가 된 붓다가 생사의 본질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상(無常)의 모습을 보여주게 한 것이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석존은 쿠슈나가라 숲속 두그루의 사라나무 아래에서 안락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날이 새자 아난다는 부처님의 입멸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모두가 놀라고 슬퍼했지만 이윽고 향과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석존의 유체에 바치고 악기를 연주하여 6일동안 성대히 장례식을 치렀다. 먼 곳에서 포교활동을 하던 제자 다하가섭이 뒤늦게 도착해 슬피 울었다. 가섭의 울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이 생겼다. 부처님이 관 밖으로 두발을 내보이신 것이다. 그것은 부처님의 열반이 죽음도 소멸도 아남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 부처님의 죽음은 육체적인 소멸의 의미보다 생과사의 무상함을 일깨운 것이란 의미에서 열반이라 부른다. 사진은 조계사 대웅전 벽화의 열반상.

## 화장뒤 유골을 삼등분하여 神들은 하늘로 모셔가고 용왕은 지하세계로 여덟 왕들은 왕국에 사리탑을 세웠다

(Paul Deussen)은 1887년에 쓴 그의 책에서 말하길 “18~19세기에 서양에 알려진 인도, 티베트 등의 불교설화를 읽고서 그 내용이 너무나 환상적이면서 깊은 신비감에 휩싸였다”고 했다. 그는 서구인들의 사고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를 접했던 것이다. 또한 설화에 등장하는 여러 사상(事象)들의 상징체계가 서구인들의 언어세계와 다른 점에도 놀라움을 표시했다. 예를 들어, 붓다가 6개의 상아가 달린 흰코끼리가 되어 어머니의 옆구리로 들어갔다는 것은 서구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그러나 이런 서술은 인도와 인근지방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6은 신성한 숫자로서, 6개의 상아는 브라만의 육문(六門)이라고 불리는 동, 서, 남, 북, 상, 하의 여섯 공간 즉 우주를 의미한다. 또한 코끼리는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동물로서 순종과 성스러움을 상징한다.

이상 석존의 전설상의 생애를 살펴보기 위해 두권의 책을 참고로 했다. 한편은 윈터니츠(Winteritz)가 ‘붓다의 생애에 관한 세세한 이야기’라고 번역한 ‘불전(佛傳, Lalitavistara)’인데 이 책은 뒤에 대승불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시 인용될 것이다. 이 책은 20세기 초에 서구어로 번역되었다. 또 다른 한편은 기원 후 2세기경 북인도의 바라문 출신인 마명(馬鳴, Ashvaghosha)이 지은 ‘붓다차리타(佛所行讚, Buddhacarita)’이다. 이 책은 석존의 일생을 찬술(讚述)한 감동적인 서사시

인연, 입멸과 사리탑의 건립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서사시는 당시 여러 사 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주 낭송되어 대중 사이에 불교신앙이 널리 퍼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책은 1894년 영어로 번역되었다. 마명의 또 다른 서사시로는 아타(阿彌陀)가 아름다운 아내 순다리(Sundari)에게서 애집(愛集)을 버리고 성자의 경계에 들어 대승불교적 사도로 승화되기까지의 경위를 유려한 문체로 묘사한 ‘순다리와 난타의 시(Sundaranta-Kavya)’가 있다.

편역 : 김 흥 근 (외대교사·문학평론가)

## 나의 수행일기

김영무 속강



이렇게도 말 할 수 있으리라. ‘자연인은 끊임 없는 선택의 결단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아리에서 서울역으로 나가려 할때 잠시만 생각해봐도 사람들은 버스, 택시, 지하철, 자가용, 오토바이 등 대역섯가지의 수단과 방법 중에서 어느 한가지를 택해야 하고, 한가지를 선택했을 때 또 한식, 분식, 일식, 양식에서 중국요리 중에서 한가지를 택해야 할뿐만 아니라 한식 중에서도 백반, 김치찌개, 된장찌개, 산나물 밥 또는 불고기 백반 등 수십가지 메뉴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심지어는 한 켈레의 양말을 구입하는데 에도 색상이나 디자인에서부터 가격문제까지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다시 보면 매사를 두고 이처럼 까다로운 선택의 고민을 해가며 사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부모형제나 국적 또는 어느 시대가 숙명적

것인가? 나는 왜 이런 글을 써야만 하는 것인가? 예를 들자면 지난해 연말경에 나는 ‘윤희’라는 장편소설을 펴낸 바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본 많은 친구들이 내게 ‘인제 이런 소설을 택해야 할까? 어쩌서 이런 소재를 택해 이런 주제를 묘사했느냐?’고 놀라움을 표현해 주었고 한 후배작가는 그 작품의 TV드라마 각색권을 기어코 자기에게 넘겨달라며 매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그 친구들에게 일일이 대답을 해 줄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엄격히 따지자면 나는 ‘윤희’라는 그 한 작품 뿐 아니라 불교를 소재로 했던 많은 희곡들을 쓰기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해도 충분한 대안이 되는데 내 입으로 감히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가.

## “좋은 작품쓰기 최선의 수행이죠”

### ‘작가로서 게을리지 않고 있나’ 자문하는 생활

(?)으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자기 인생을 책임질 나이가 되면 서부터 본인이 의식하지는 않지만 자기의 삶을 위한 일종의 계율을 갖게 되고 점차 그 계율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다.



부처가 되고 싶어 한다고 모두 부처가 될 수는 없고, 뽕잎을 먹는 벌레만 모두 비단실로 고치집을 짓는다는 말도 할 수 없듯이 사람은 결코 자기 초상화를 스스로는 완성 할 수가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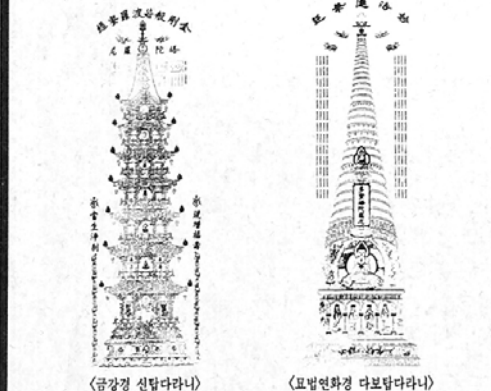
마찬가지 맥락으로 작가가 허더라도 이런 작품을 쓰겠다 한다고 해서 꼭 그런 작품이 빛어지지도 않는 법이다. 그러니까 부처리히 뽕잎을 먹으며 살아온 누에가 어느 날엔가는 저절로 비단실을 토해 낼 수가 있듯이 작가 역시 작가로서의 계율을 엄격히 지키며 살아가면 어느날엔가 마음먹고 있었던 작품이 빛어질 뿐이란 계율의 내 소신이었다.

한방울의 빛물이 바닷물이 되기 위해서는 냇물이 되었다가 강물이 되어 멀고도 긴 여행을 해야 하듯이... 물론 작가들은 수시로 또 반문도 해보기 마련이다. ‘나는 지금 나의 계율을 잘 지키고 있는 나?’ 그런 반문 앞에서의 대답은 언제나 간단하다. 자기 자신의 작품 앞에서 수직심을 느끼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수행정진을 잘 걸어온 셈이 아닌가? 다행이라 말할까? 나는 아직 내 작품 앞에서 수직심에 몸을 떨어 본 적도 없고, 자괴감에 빠져 본적도 없다. 제 삼자들에게서도 좋은 인정을 받아 왔고... 그런 것들이 또 나를 고분스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따라서 한사람의 작가로 수십년 살아온 나 역시 숙명적인 환경에 나름대로 작가적인 삶을 위한 계율을 지키며 살아온 셈이다. 불교라는 종교에 대한 선택 또한 과거세의 무수한 인연에 의한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최선의 수행을 최선의 작품쓰기로 환치시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 나는 사람이 직업으로 택할 수 있는 수십만가지 일들중에서 글쓰는 일을 직업적으로 택했던 사람이고, 마치 수도승이 사리를 남기듯 좋은 작품을 남기려고 단연 치열한 의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다. 그런데 바빠서 말하지던 어느 한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나머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도 되는데 실인즉 선택도 어렵지만 포기를 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일 수는 없는 것이다. 속세에 머물면서 세속적인 많은 유혹들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웠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내게는 이제 선택의 번거로움은 끝났다는 말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인간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크고 작은 선택의 고민은 따라 다닌다. ‘나는 과연 무슨 작품을 어떻게 써야 할

## “어려운 역경 속에서 佛事(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스님께 알려드리는 귀중한 정보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 고품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알집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 62cm x (세로) 160cm

■ 상담문의 : 대한불교 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051) 864-3740

■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9-1906, 야간(0342) 706-3060

- 佛塔다라니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주는 강력한 기가 발생됨이 입증된 본회의 佛塔다라니 2종류를 사용함으로써 인체(人體)와 영계(靈界)에 파장되는 기(氣)의 흐름을 체계화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할 수 있고, 조상영을 판단하여 운을 좋게 변화시키고 또한 佛塔다라니로서 영(靈)을 천도시키는 방법 등이 수록된 귀중한 정보책자를 일차로 금년에 1,000군데 사상에 보내드려 큰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연락처는 대로 보내드리오니 주소 사찰명, 전화번호만 알려주시면 기 바라며, 이 책자는 현재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께만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이 방법은.....
  - ① 신도 개개인의 현재의 운과 그 신도의 남편, 부인, 자식, 부모, 형제들의 운까지도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줄 수 있고 이 방법으로써 스님께서 신도들의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바꾸어줄 수 있으며
  - ② 영가의 병의상해, 관념파장의 방해를 확인하여, 영가의 병의 및 관념파장을 천도, 차단하는 원리를 보여줄 수 있으며
  - ③ 신도들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해줄 수 있으며
  - ④ 산소에 땅이 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산소를 잘못 써서 조상령이 천도되지 못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느 산소이든 그 산소 자리를 좋은 地氣가 넘치도록 하여 후손들이 번복하도록 해줄 수 있고
  - ⑤ 집터나, 상가, 사무실 등에 좋은 운기가 계속적으로 펼쳐도록 하여 만사형통하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님은 다년간 경험을 해본결과로 그 신비성이 확실함을 알게 되어, 이런 기회에 책자를 만들어 보내드리고, 사찰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역경을 겪고 있는 스님들에게 조급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져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佛子들 대부분은 자신의 현재의 운세와 운명을 몹시 알고자 하며 또한 나름대로 간절한 염원과 소원이 있어 이것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스님들께서 제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불탑다라니가 스님의 기도법력과 합해져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입니다.

##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佛塔비빔”

## “뜨겁지 않고 흥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佛塔비빔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랫동안 병을 낫고자 병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佛塔비빔기를 먼저 써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佛塔비빔기 도입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께서 바라밀佛塔비빔기 도입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에가 많기 때문입니다.



### 바라밀 佛塔비빔기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佛塔비빔기는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과로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게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근살, 피부미용, 시력저하,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 佛塔비빔기 내용
  - 1) 바라밀 佛塔비빔기를 뜯 수 있는 15 가지 도구세트화(강화약속 약 2개월분 포함)
  - 2) 佛塔비빔기 도구 일체 반영구적
  - 3) 佛塔비빔기 핸드셋으로 전화로 사용
  - 4) 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 일입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佛塔비빔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중위사람 도움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뜸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기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앙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흥터가죽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佛塔비빔기를 뜸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佛塔비빔기요법

- 바라밀 佛塔비빔기 구입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금강경 신평다라니 1책씩을 같이 드립니다.
- 전국 시, 군 단위로 바라밀 佛塔비빔기를 보급할 분을 찾습니다.

구입문의 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연구회**

- 부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스님)
- 부설 : 불교바라밀건강연구회 · 전화 : (051) 864-3740
- 서울 · 경기 :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 전화 : (0335) 34-9490, 39-1906 / 야간 : (0342) 706-3060